

초일류 건설 현장탐방  
(주) 태영 경산 상수도 시설확장 공사

## 안전이 준비된 “경산 상수도 시설확장 공사” 현장

- (주) 태영 -



**인**간존중, 원리원칙에 입각한 안전관리 법규 준수의 안전경영방침 아래 어떠한 재해도 막아 내자는 목표로 뚝뚝 뚫린 현장이 있어 찾아 갔다.

경산시 양양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태영 “경산 상수도 시설 확장 공사” 현장(양병조 소장)이 무

재해 현장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가 된 곳이다.

재무구조가 탄탄하여 건설 경기 불황속에서도 (주)태영의 시장 신뢰도를 바탕으로 1위의 건설 회사로 발돋움하고 있는 (주)태영은 품질안전에 대해서 만큼은 한치의 오차도 용납을 허용하지 않는다.

초일류 건설 현장탐방  
(주) 태영 경산 상수도 시설확장 공사

조선시대의 암행어사를 방불케하는 본사 품질안전팀에서의 현장 불시점검은 예고없이 한밤중, 새벽에도 찾아와 안전이 준비되지 않은 현장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제재를 가한다.

관공서의 안전점검 실태 조사보다 더 엄격한 본사 품질안전팀의 불시점검은 전 현장에 긴장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그런데 경산 상수도 시설확장 공사 현장은 그렇지 않다. 항상 안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8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75%의 공정을 을 진척시키고 있는 이 현장은 2000년 3월에 무재해 1배를 달성하고, 현재 무재해 2배 달성을



▲ 양병조 소장

눈앞에 두고 있다. 또한, 2000년 11월에는 대한산업안전협회를 통해 초일류기업으로 인증되었으며, (주)태영은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자율현장”으로 4년연속 선정되기도 하였다.

자율안전을 지향하는 이 현장에는 양병조 소장이라는 인물이 있다. 양소장은 평소 근로자의 안

전을 위해 안전활동을 구상하고, 타현장 및 타사의 현장 관계자를 만나 그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안전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당 현장에 맞도록 적용시키는 등 그 노력이 특별하다.

양병조 소장은 당 현장에 “My Area 제도”를 보급·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재해



▲ 현장 안전실태 조사

는 찾아 볼 수 없었으며, 품질향상에도 많은 진척을 보였다고 한다.

그래서 My Area 제도를 타 현장에 전파하기 위해 품질안전팀에 보고된 상태이다.

본 현장에는 암반이 많아 암반발파시 소음, 진동에 따른 주변 건물의 균열 및 지반 붕괴 등 민원을 미리 예상하여 주변 건물에 대한 사전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발파안전평가를 실시한 후 NPS 신기술인 무소음, 무진동공법을 채택하여 품질과 안전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럼 이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전관리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 My Area 제도

이 제도는 현장 전반에 대해 직원에게 담당구

역을 책임 지정하여 담당구역내의 정리·정돈 및 안전시설물 설치·관리, 안전시설물의 이상 유무 확인 등 담당구역내의 제반 안전관리 사항을 책임지고 처리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현장, 안전한 현장을 만들고 있다.

### 그네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그네식 안전벨트는 전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 및 일용근로자에 이르기까지 그네식 안전벨트를 지급하여 지상에서 1m이상에서는 무조건 안전벨트를 착용토록하고 있다. 또한 이 제도를 협력업체 근로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협력업체 책임자·반장 등으로 구성된 안전관리 협의체에서 매월 1~2회의 안전회의를 통해 위반 근로자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안전규칙을 잘



▲ “안전보건 11대 기본 수칙” 교육

준수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수여하는 등 안전활동 참여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 위험예지활동 철저

매일 아침 작업 시작전에 전 근로자가 모여 안전조회 및 체조를 실시하고, 각 작업공종 팀별 소모임을 갖고 작업에 투입하기 전에 위험예지활동을 철저히 한다. 이 활동에서는 작업공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파악하고 팀별로 지적, 제창함으로써 위험성을 숙지하고 작업에 들어간다.

###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홍보 및 준수 철저

최근 노동부에서 제정한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을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본 수칙을 전직원에게 숙지토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책상이나 Diary 등 사소한 부분에게까지 이 수칙을 부착케하여 기본수칙 준수가 생활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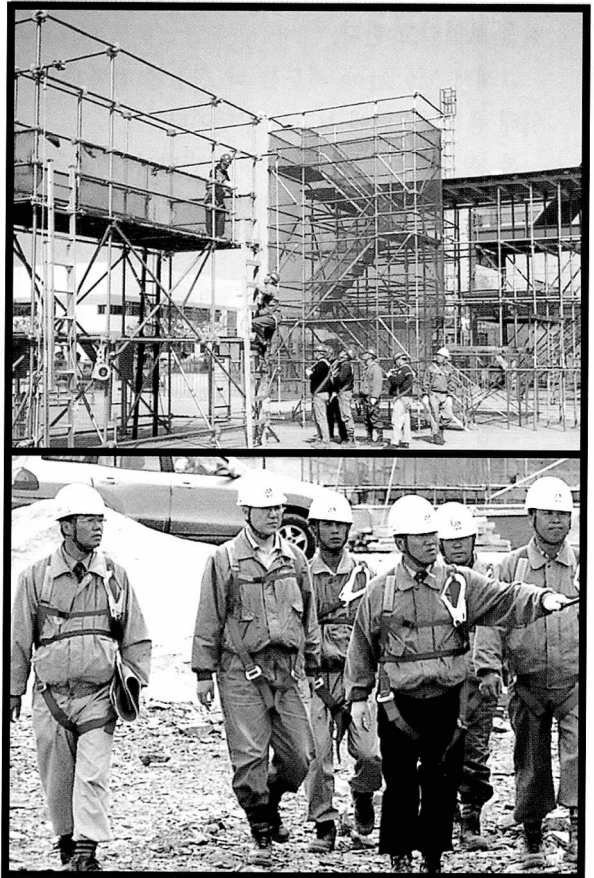
또한 전현장에서는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현수막 및 입간판을 제작하여 원청사, 전 협력업체에 보급하여, 협력업체 근로자에게까지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이 숙지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외 작업시작전,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에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을 제창하도록 함으로써 조기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전사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철저한 안전활동이 항상 안전이 준비된 현장을 만드는데 기초가 되고 있다.

『저희 현장에서는 항상 안전한 조치를 실시하

### ▼ 건설 안전 체험 교육



▲ 불시 현장 점검

고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업이 늦어도 좋습니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작업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양병조 소장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현장소장으로서 어떠한 재해도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물 투자와 제도적 장치 마련, 그리고 안전하고 활기찬 작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모든 직원 및 근로자는 기본을 지키는 안전활동을 당부한다. 